

‘ACC 시민오케스트라’에 도전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시민오케스트라’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 공연 모습.

문화전당, 전문가·아마추어 모집

30일까지 접수...서류·오디션 심사

12월 10일 예술극장서 연주회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진행한 ‘장롱 속 악기를 꺼내 드립니다’는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오랫동안 음악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악기 연주를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던 기획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들이 경연을 벌였다. 또 오디션을 통해 뽑힌 참가자와 민간 오케스트라는 유엔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당초 전당 측은 일정한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자체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오케스트라들이 함께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었다.

전당은 올해 본격적으로 ‘2017 ACC 시민오케스트라’를 모집한다. 시민들의 연주에 대한 꿈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대상은 현재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음악인이나 오케스트라 편성 악기 레슨을 시작한 지 2년 이상된 아마추어 연주자다. 중학생(2005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부터 참가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와 오디션 등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오케스트라 구성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등의 악기로 3분 내외 분량의 자유곡을 연주하면 된다. 마감은 30일까지다.

오디션은 오는 7월 8일 전당 예술극장 아틀리에 1에서 열리며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연주자들은 7월 1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문강사로 부터 7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주간 매주 토요일 레슨을 받게 된다. 최종 연주회는 12월 10일 전당 예술극

장 1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김유정 광주음악협회장이 맡았으며 광주 출신으로 빈 국립음대 지휘교를 졸업한 정월태(유니버설 필하모닉 상임지휘자)씨가 지휘자로 참여하게 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홈페이지의 ‘ACC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전자우편(acc-orch@acc-k.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당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마추어의 경우 2년 정도 꾸준히 레슨을 받으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점에서 2년으로 기준을 정했다”이라며 “꼭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디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602-40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통신사선’ 복원·재현한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7톤 실물 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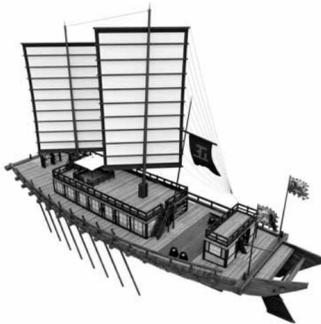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조선 시대에 일본 통신사절단이 타고 바다를 건너던 ‘조선통신사선’(朝鮮通信使船)을 복원, 재현한다.

조선통신사선은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12차례 걸쳐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들을 태우기 위해 국가에서 제작·운영한 배다. 당대 최고 기술력을 동원해 당시 최대 규모로 건조한 선박이다.

오는 2018년 9월까지 국내 처음 실물 크기로 제작되는 조선통신사 재현선은 전문가 고증과 문헌 기록을 참고해 조선 시대 선박 건조방법으로 만들어진다. 크기는 길이 34.5m, 너비 9.3m, 깊이 3m로 총 톤수 137톤이다. 또 궁궐단청과 비단 등 전통방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선박에는 2개의 돛을 세우고 측면에 각각 8개의 노를 설치한다. 실제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승선원 안전도 고려해 보조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재현현장에는 원형을 알 수 있도록 실제 크기 약 30분의 1 크기의 추정모형을 만들어 전시하고, 제작과정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내부에는 선상박물관을 구성해 통신사선을 비롯한 조선 시대 배와 관련된



조선통신사선 재현선 예상도.

자료 등을 전시한다. 또한, 섬과 오지 등 소외지역으로 조선통신사선을 직접 운항해 선보이는 ‘찾아가는 박물관’과 승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해마다 추진하는 조선통신사 축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해양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3일 전남대유지관 컨벤션에서 열린 ‘2017 광주·전남이 읽고 푼 하다’의 한책 특 콘서트에서 한강 작가(왼쪽)가 평론가인 차미령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전남대 제공>

“글 쓰는 것은 빛을 향한 몸부림”

한강 작가, 전남대 ‘2017 한책 특 콘서트’ 참석

“글을 쓴다는 것은 빛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이며. 그것의 결과물이 내가 쓴 글입니다.”

소설 ‘흰’의 저자 한강 작가가 광주·전남 지역 독자들에게 들려준 자신의 작품활동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다.

한강 작가는 23일 전남대유지관 컨벤션에서 열린 ‘2017 광주·전남이 읽고 푼 하다’의 한책 특 콘서트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 매번 싸우듯이 글을 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학평론가이자 광주과학기술원에 재직중인 차미령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날 ‘한책 특 콘서트’는 500여 명의 청중이 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뜨겁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두 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한 작가는 “왜 그렇게 힘들게 글을 쓰느냐?”는 독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쓰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다”고 말했다. 이어 “내 소설을 어렵고, 힘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부족한 사람이 싸우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남극에서는 냉장고 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쓰지 않고 느끼는 고통보다 덜 힘

들다.”면서 “그것이 작가로서의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한강 작가는 “소설 ‘흰’의 1장(나)은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죽은 언니에 관한 이야기로 100% 실제이며, 2장(그녀)과 3장(모든 흰)은 죽은 언니에게 빌려준 내 삶과 다시 나로 돌아와 내가 그녀와 작별해야 하는 순간을 그렸다”고 소개했다.

작가와 청중이 소설 ‘흰’의 주요 부분을 낭독한 뒤 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들어보고, 책을 낭독한 청중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담백하게 밝히는 콘서트의 진행방식이 시종 진지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남대 허민 부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설 ‘흰’은 물질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깨닫게 해준다”면서 “한강 작가님과 함께 읽고 있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는 2013년부터 지역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으로 ‘광주·전남이 읽고 푼 하다’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는 또한 144개(회원수 1214명) 독서클럽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는 장흥으로 떠나는 한책 문화기행을 실시한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부 ‘제3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7월17일부터 8월17일까지 ‘제3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네이버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한글’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콘텐츠, 스마트 정보기술(IT), 디자인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한글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상품화 가능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상금 1500만원), 우수상 3명(콘텐츠·IT 800만원, 디자인 500만원) 등 총 13명(팀)을 선정한다.

공모전 수상자는 상품화·창업 컨설팅, 특허 출원 지원, 박람회·전시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hangeulawar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